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읽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 교재 텍스트의 진정성을 높이는 개작을 중심으로 -

김정남**

목 차

- I. 서론
- II. 텍스트의 진정성과 개작의 중요성
- III. 텍스트의 진정성을 높이는 개작 방법
 - III-1 문장 간결화
 - III-2 문장 상세화
 - III-3 문장 정형화
 - III-4 어휘 대치 및 확장
 - III-5 텍스트 분량 조절
 - III-6 텍스트의 구조 제시
 - III-7 학생 주도 개작
- IV. 결론

I. 서론

최근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대개 한국어를 2년 이상 학습하여 말하기와 듣기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창성을 갖춘 후에 한국의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부나 대학원에서 수학 과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 기능 영역은 '읽기'이므로 이런 학습

* 이 논문은 2007년 8월 4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GK한국언어문화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자들에게는 읽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읽기는 정보 습득을 위한 기초 능력이므로 읽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학에서의 수학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모든 언어 기능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읽기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교재의 중요성이 크다. 언어 기능 교육 자료로서의 읽기 교재도 중요하지만 여타의 학문 활동에서 바탕이 되는, 즉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할 한국어 기초 읽기 교재의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최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에서 핵심 부분이 되는 읽기 텍스트 자체의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텍스트 구성의 유의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와, 읽기 텍스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좋은 읽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교육 방법적 차원의 문제, 두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전자의 문제, 즉 텍스트의 개발 방향이란 텍스트의 진정성(authenticity)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최근 의사소통 중심적 교수요목의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료의 진정성이라는 문제가 특히 부각되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육용 텍스트에서 왜 개작(adaptation)¹⁾이 필요한가?”, “텍스트의 개작은 진정성을 해치는가?”, “교재로 이용되는 텍스트에서 필연적으로 개작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바람직한 개작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가시화된다.

후자의 문제, 즉 읽기 텍스트의 효과적인 제시 방법과 관련한 문제는 읽기 전이나 읽은 후 단계에서 텍스트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텍스트의 이해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모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교육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재 속에서도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 텍스트의 구조를 제시하되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이다.

결국 한국어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읽기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며 이 논문에서 이상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학문 목적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 특히 텍스트의 진정성을 해치기보다 오히려 높여 주는 교재 개발의 방향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일반적으로 교재 개작이란 분석, 평가를 통해 선택된 교재를 특정의 학습 현장에 더 적합하도록 수정을 가하는 것을 말하지만(이해영, 1999:295) 본고에서 말하는 텍스트 개작이란 일반 읽기 자료를 한국어 학습 교재 속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변개를 하는 것을 이른다.

II. 텍스트의 진정성과 개작의 중요성

자료의 진정성(authenticity) 문제는 여타의 외국어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도 중심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인된 말뭉치를 활용하며 어휘의 빈도를 조사하고 언어 관계를 계량화하고 공식화하고 자주 사용되는 문법 항목들의 빈도를 산출하며 심지어 존재의 등급을 간소화하기까지 하는 등 일련의 작업들이 한국어 교육용 언어 자료, 즉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한국어 내용(contents)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실 환경에서 지나치게 조작되고 통제된 교재를 사용하여 실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학습한 학습자들이 막상 자기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진행되는 한국어의 현실 발화 현장 속에서 좌절한다고 하는 보고(김영아, 1995:168, 171)는 교육 자료의 진정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개별 사례들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접근하여 직접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다소 실용성을 표방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개별 발화 장면 하나하나, 개별 읽기 자료 하나하나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사례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담화 상황의 추상 혹은 전형적인 텍스트를 상정하여 그 속에서 의사소통 및 이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바, 교육 자료의 완전한 실제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말하기나 듣기와 같은 구어 상황이 아니라 읽기와 같은 문어 상황에서는 어차피 수많은 자료 가운데서 일부의 선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 중 교육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자료를 선택하는 임무가 교수자에게 주어진다. 이때 이상이면 그 자료의 선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정 혹은 개작(adaptation) 과정을 거침으로써 교육 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읽기나 쓰기 교육에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모범적인 텍스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이든 한국어 교육이든 교육적 목적으로서의 읽기 텍스트의 선정에서는 공들인 선별 후에 반드시 부분적이라도 개작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문학 작품을 예술적 차원에서 감상하는 경우라면 텍스트를 개작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금기시되지만 교육적 목적 하에서는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단계나 목표에 맞게 개작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더욱 진정성을 얻는 길이 된다.

김영규(2005:75)는 Long(1997)의 논의를 가져와 “외국어 교사는 단순화 또는 상세화가 진정성이 없다는 식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많은 학습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해시킬 보충적 장치를 지닌 상세화된 텍스트를 쓰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한국어 읽기 교육에 있어서 교재에 사용할 텍스트의 개작 과정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주장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를 얼마나 잘 수정하고 개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어의 일반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의 진정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더욱 바람직한 텍스트의 이해에 도달하게 하고 나아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 수준을 향상시키며 이에 더하여 한국어 텍스트 자체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길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실제 텍스트가 현실성이라는 점에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전공 내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언어로서의 한국어 문장이나 표현, 어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로 고안되지 않고 실제 전공 분야의 지식과 정보 전달만을 위해 저술된 텍스트를 바로 읽기 교재로 채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교재용 텍스트의 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²⁾ 이에 따라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읽기 텍스트 개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텍스트의 수정이나 개작이 자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의를 하였고 그러므로 텍스트의 개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개작의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한 김영규(2005)를 적용할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방법들을 고안하여 구체적인 텍스트 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텍스트의 진정성을 높이는 개작 방법

III-1 문장 간결화

학습자의 단계가 초급 혹은 중급인 경우에는 문장이 긴 것이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

2) Grant, N.(1987)에서도 교사들의 교재관을 교재 신봉형(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과 교재 무시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교과서 없이 가르치는 교사), 교재 이용형(과서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개작하여 가르치는 교사)으로 크게 나누어 놓고 교재 개작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공 분야의 저서, 즉 현실적인 텍스트들은 대체로 만연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텍스트를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한국어 교재에 읽기 텍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간결화(simplification)하는 개작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A4 용지에 10포인트로 타이핑하였을 때 두 줄 이상 되는 문장은 다시쓰기를 통하여 간단한 문장들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 앞에서 텍스트의 수정이나 개작이 자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의를 하였고 그러므로 텍스트의 개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앞에서 텍스트의 수정이나 개작이 자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개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가. 이 사전의 가장 큰 특성은 학습자(사용자) 중심으로 체계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기존의 사전이 어휘의 단순 기술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편찬 원칙을 정하고 기술하고 있다.

나. 이 사전의 가장 큰 특성은 학습자(사용자) 중심으로 체계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사전이 어휘의 단순 기술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편찬 원칙을 정하고 기술하고 있다.

(1)과 (2)의 (가)를 각각 (나)로 개작한 과정을 보면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고치고 접속어를 삽입하였다. 그것이 결국 텍스트의 전체 길이를 늘어나게 하였으나 개별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삭제’는 문장 속의 다소 불필요하고³⁾ 의미 해석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과감히 잘라냄으로써 문장, 더 나아가 글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개작이다.

(3) 가. 며칠 전 일본 (日本)대 연구팀은 수면과 우울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수면시간이 7시간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가장 좋다고 발표했다.

3) 대개 잉여적(redundant)인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 며칠 전 일본 니혼(日本)대 연구팀은 수면시간이 7시간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가장 좋다고 발표했다.

(3가)에 들어 있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병명이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쉽지 않거니와 ‘수면과 우울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라는 부가적인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텍스트의 복잡성만 더해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면 (3나)와 같이 간결하고 쉬운 텍스트로 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4)의 예도 문장 구조 간결화 개작의 예이다.

(4) 가. 세계적 과학 잡지, 디스커버리호는 지난 94년 7월 호에 ‘글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특히 한글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나. 세계적 과학 잡지, <디스커버리지>4)는 지난 94년 7월 ‘글자’ 특집호에서 한글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고 한글에 대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썼다.

(4가)의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라고 하는 종속절을 (4나)에서는 ‘특집호에서’라는 부사구로 간단히 바꾸는 개작이 이루어졌다.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었으므로 문장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다. 또한 “설명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다”와 같은 흔히 볼 수 없는 문어적인 관용적 표현을 지양하고 “~에 대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썼다”라고 내용을 풀어서 기술함으로써 어휘와 구조를 단순화하였다.

II-2 문장 상세화

읽기 텍스트에서 문장의 길이가 긴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부연의 성격을 가진 간결한 문장을 후행시킴으로써 앞 문장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 (5)에서 (나)는 (가)에 없는 부연 문장 하나가 첨가된 것인데, 이를 통해 앞 문장의 어려운 어휘를 쉬운 동의어로 대체하고 문장도 거의 의미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줌으로써 앞 문장의 이해를 돕고 있다.

4) ‘디스커버리’는 잡지의 이름이므로 ‘호’를 붙여 쓰기는 어렵다. 그대로 쓰거나 ‘지(誌)’를 붙일 수 있고 또한 잡지명으로 고유명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를 해 주는 것도 좋다. 텍스트 개작에서는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들어가며 또한 원문의 표현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도 반드시 수반된다.

(5) 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면이 적정한가.

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면이 적정한가. 얼마나 자는 것이 적당할까?

다만 이러한 개작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문장의 자연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너무 쉬운 문장, 그리고 주제문의 성격을 갖지 않는 부차적인, 덜 중요한 문장에 대하여 부연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뒷문장을 후행시켰을 때 전체 글이 부자연스러워지면 곤란하다. 그럴 경우 진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덜 중요한 문장에 대하여 다른 문장을 첨가시켜 부연한다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 이해를 올바르게 이끌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다음 (6)은 선행절에 없는 주어를 부가하고 문장의 의미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부사어를 첨가하는 등의 상세화(specification) 개작을 행한 예이다.

(6) 가. 학자들의 오랜 숙제인데 하루 7시간의 수면이 가장 좋다는 연구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나. 이 문제는 학자들의 오랜 숙제인데 최근 하루 7시간의 수면이 가장 좋다는 연구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6가)에서는 선행 종속절의 서술어가 ‘숙제인데’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주어가 문면에 나타나지 않아 의미 해석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6나)에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근’이라는 부사를 삽입하여 후행절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의미적인 혼동을 줄이는 상세화 개작을 행하였다.

(7) 가. 사투리는 그 지방만의 가진 독특한 맛과 개성이 있다.

나. 사투리는 그 지방 사투리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맛과 개성이 있다.

(7)은 표현이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의미 전달이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서술해 줌으로써 이해를 돕는 상세화의 예이다. 이러한 상세화의 경우 내용을 풀어 주어서 이해를 도울 뿐 문장 구조 면에서 복잡화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7나)에서는 관형절 내포문이라는 구조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3 문장 정형화

한국어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학문적 텍스트들에서 볼 수 있는 한국어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정형화(standardize)된 문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한국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 텍스트 생산자들 중 상당수가 해외 유학의 배경 때문에 한국어 글쓰기보다 영어 글쓰기가 익숙한 경우가 많다는가 또는 전공 분야의 한국어 저술 중 상당수가 외국 명저들의 번역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든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공 분야 저술 중에는 한국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예들에 대한 개작은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이다. 영어 등 국제어의 위상을 가진 언어들은 오래 전부터 제2언어로 학습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문형 등에서 정형화된 패턴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한국어는 아직 그러한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 중 학문 목적 학습자는 실질적으로 2003년 이후에 부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전체 학습자 중 70%에 육박하는 숫자가 학문 목적 학습자로 파악되고 있으나⁵⁾ 이러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고려한 정형화된 전공 교재 개발에 대한 문제가 각 학문 영역에서 아직 부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자국민만을 고려하였던 외국인을 함께 고려하였던 불문하고 학문 분야에서 생산된 한국어 텍스트⁶⁾ 중에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장들에 대해서 어차피 외국인들이 그 학문 분야의 저술들을 접하더라도 한국어의 학문 분야 저술들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표준적인 문장을 그대로 교재 텍스트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그것은 지나친 사실주의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전공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우선이라지만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한국어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개작하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다. 비문법적인 문장을 독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사부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그것이 학습자의 머릿속에 겨우 자리 잡은 한국어 문법을 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가. 존대법의 사용을 존대, 비존대의 획일적인 기능적 범주로 나누고,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행

5) 외국인 유학생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3만 2,557명의 기관 한국어 학습자 중 2만 2,624명이 학위 과정 유학생이라고 한다.

6) 이때의 한국어 텍스트란 한국어를 메타언어로 하는 전공 분야의 저술 텍스트를 의미한다.

위에서 발견되는 존대법 사용의 기능적 역동성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무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나. 존대법의 사용을 존대, 비존대의 확실적인 기능적 범주로만 나누고,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행위에서 발견되는 존대법 사용의 기능적 역동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거나 무시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다. 그동안 존대 관련 연구에서는 존대법의 사용을 존대, 비존대의 확실적인 기능적 범주로만 나누었다.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행위에서 발견되는 존대법 사용의 기능적 역동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거나 무시하여 왔다.

(8가)의 문장은 ‘-고’라는 대등 관계 접속어미로 이어진 문장인데 선행절에서는 ‘나누고’라는 능동사를 쓴 반면 후행절에서는 ‘다루어지거나 무시되어’라는 피동사를 써서 동일 주어의 행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므로 후행절 동사의 태를 선행절 동사의 태에 일치시키는 수정을 하였다. (8나)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8다)처럼 간결화의 개작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9) 가. 오류 발생률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어휘의 품사별 출현횟수와 오류 횟수를 검토하는 것은 오류의 횟수가 높으면 그 품사의 난이도가 높다든지, 혹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로 판별해 버릴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나. 오류 발생률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어휘의 품사별 출현 횟수와 오류 횟수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오류의 횟수가 높으면 그 품사의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하거나 그 부분이 특히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요소라고 판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출현 횟수 대비 오류 횟수의 산출은 이러한 그릇된 판단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9가)에서 (9나)로의 수정은 문장 형식을 정형화하는 개작 과정에서 재배열(reordering), 상세화(specification), 그리고 문장 나누기를 복합적으로 도입한 경우이다. 이렇게 전공분야 저술 텍스트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내용을 다루는 텍스트들에 비하여 비문이나 통사적으로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문장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으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문장을 간결하고 정확한 주요 문형 패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즉, “형식은 간결화하면서 내용은 상세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김영규(2006:76)에서는 “원래의 텍스트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긴 하지만 원래의 텍스트가 담고 있는 어휘나 구조를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동시에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가 추가로 더해져 있”는 경우를 “어휘 및 구조적으로 텍스트를 상세화한” 것이라 하면서 이를 “어렵다고 느껴지는 구조 및 어휘가 생략되는” “텍스트 단순화”의 경우와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9)와 같은 개작의 예가 형식은 간결화하면서 내용은 상세화하는 것이어서 ‘어휘 및 구조적 상세화’와 유사한 경우라 하겠다. ‘간결화’란 문자적 의미대로라면 분량이 줄어든 경우를 연상할 수 있으나 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상세화가 동반되는 과정이어서 결과적으로 분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작은 비단 외국어 교육이나 그 특수 분과인 한국어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학습 자료화하기 위하여 개작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모어 화자의 수준별 읽기 교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텍스트 개작 과정에도 도입될 수 있다. 앞에서 문학 작품의 경우 개작이 금기시된다고 하였으나 광범위한 번역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번안적 성격이 가미된 의역, 고전문학의 현대어화, 그리고 문학작품의 아동용 개작 등에서 반드시 텍스트의 진정성이 사라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III-4 어휘 대치 및 확장

전공 분야 텍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공 관련 용어의 사용이다. 용어가 없이는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내용이나 정보를 글로 담아낼 수가 없다. 말하자면 전공 분야의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강현화·박동규(2004)에서도 바로 이런 점을 중시하여 경영학 전공 분야의 용어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읽기 텍스트가 반드시 전공 분야의 저술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려운 전문 어휘는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쉽고 일반적인 단어로 대치하는 것이 가독성(readability)을 위해 좋다. 이런 대치 과정에서 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뭉치 자료이다. 말뭉치를 통해 산출된 어휘 빈도를 기준으로 단어를 선별하고 또, 연어 관계를 찾아서 특정 어휘와 연어 관계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유의적 계열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아 대치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 대치는 전문 용어를 완전히 없애고 일반 단어

로 풀어내는 대치의 과정만 거치는 것보다는 전문 용어를 그대로 두면서 다소 부연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 즉 반복적 대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그 학문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 용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휘 대치를 본고에서는 확장(extension)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 (10)은 전문 용어가 들어 있는 텍스트를 어휘 확장의 방식으로 개작한 예이다.

(10) 가. 대규모 언어 자료 처리에 있어서 언어학적 주석(annotation)은 필수적이다. 아무 정보가 부착되지 않은 원시말뭉치(raw corpus)의 경우 이용에 많은 한계가 있다.

나. 말뭉치와 같이 전산화된, 즉 컴퓨터에 입력되어 기계적으로·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규모 언어 자료 처리에 있어서 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annotation)을 각 띄어쓰기 단위마다 달아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근이니 접사니, 혹은 어간이니 어미니 하는 형태소 정보, 명사, 동사, 부사 등 품사 정보, 주어, 서술어 등 문법 관계 정보 등을 각 단위마다 달아준 것이 바로 언어학적 주석이다. 이와 같은 정보가 부착되지 않은, 즉 주석이 달려 있지 않은 원시말뭉치(raw corpus)의 경우 이용에 많은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어휘 확장이란 전문 어휘에 대하여 풀어쓰기를 해 주고 따라서 내용을 상세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문 어휘들의 의미를 익힐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10가)에서는 ‘주석, 원시말뭉치’ 등의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영성한 문맥 속에서 대략 짐작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나)와 같이 어휘 확장을 통하여 개작한 텍스트에서는 전문 용어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부연하는 부분을 많이 삽입함으로써 전문 용어를 분명하게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용이나 분량을 줄이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부연하고 상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해를 돕는 길이 된다는 생각이 본고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물론 읽기 교재용 개작 과정에서는 텍스트 전체의 분량 조절도 중요한 논의거리이다.

III-5 텍스트 분량 조절

읽기 교재를 옆두에 두고 일부러 집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한 차

시별로 단위화되어 있는 교재 속에 넣기에는 분량이 많다. 다행히 긴 분량의 텍스트를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텍스트는 일정 부분을 잘라내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긴 분량의 텍스트를 채택하게 될 수도 있으나 강독 전용 교재가 아니라면 읽기 텍스트의 분량 조절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라서 교재에 넣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서 텍스트의 분석이 요구된다. 어느 부분이 앞뒤를 잘라내고 살려 쓰기에 적합한가? 이는 완결된 텍스트가 갖는 전후 지시성을 고려할 때 판단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며 그러므로 분량 조절을 위해 가장 문제가 없을 부분을 골라내는 일 이외에, 다시 잘라낸 후의 개작을 통하여 전후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손질하여 텍스트의 완결성을 살리는 일이 요구된다.⁷⁾

그러나 텍스트의 분량 자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간단한 읽기에서는 한 문단만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서너 문단을 제시하기도 하고 6~7 페이지, 혹은 10여 페이지가 넘는 짧은 에세이나 단편소설 등을 그대로 한 단원에 채택해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텍스트의 분량에는 융통성이 있으며 따라서 무작정 핵심 부분만을 채택하고 거두절미해 버리는 방식이 최선이 아니다. 특히 한 편의 글 속에서 이어진 문단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경우라면, 가령 주제 문단 뒤에 부연 문단이 이어진 경우나 주제 문단 뒤에 예시 문단이 이어진 경우라면 주제 문단만 딱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어진 두 문단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텍스트는 다소 길어지지만 독해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 텍스트에서 서사문이나 묘사문이 주가 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전공 저술 텍스트들은 설명문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문들은 원 텍스트 자체가 여러 개의 소절로 나뉘어 있고 주제도 대개 소절별로 달라지므로 그 소절을 단위로 하여 분량을 조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텍스트의 분량 조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텍스트의 특성과 그에 맞는 읽기 교수법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문장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경우나, 주제가 난해하여 집중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텍스트라면 텍스트 자체의 분량을 적게 잡고 그 내용에 대한 '상세화' 개작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문장 구조가 평이하고 주제가 가벼워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텍스트의 분량을 다소 많이 잡아서 교재에 채택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휘 부문에 있어서도 짧은 텍스트 안에

7) 본래부터 짧은 이야기, 가령 이솝 우화 같은 것이 읽기 교재에 많이 채택되어 있는 것은 교재 개발자들이 이러한 분량 조절의 고민을 덜기 위해 이렇게 길이가 짧은 텍스트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서 너무 여러 가지 어휘가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유사한 의미의 용어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면 쉬운 용어가 사용된 부분을 살리고 다른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분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그 용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상세화 개작을 통하여 분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III-6 텍스트의 구조 제시

텍스트의 구조 제시는 한 단락 분량의 텍스트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단락으로 되어 있거나 전문이 모두 교재 속에 채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량 조절이 선행되어 텍스트의 일부분만 제시된 경우에도 개작되기 전 전문의 구조를 완전히 보여주고 그중 해당 텍스트는 어느 구조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독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양병한(1984)에서는 텍스트의 구조를 제시한 후 읽게 한 학습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 집단에 비하여 훨씬 높은 독해 정도를 보여줌을 실험 결과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여 원래 텍스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화된 목차를 텍스트 앞부분에 제공하는 것 역시 텍스트 개작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다음 (11가)의 예문에서는 (11나)와 같은 상세화된 목차를 제시해 주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1가)

정약용은 조선의 실학자이자 대사가이며 철학자이고 탁월한 시인이며 의학자이며 건축학자이며 정치가였다.

정약용의 저서는 5백 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른바 철학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경학(經學)관계 저술이 232권에 이른다. 이는 주자학(朱子學)의 경학논리를 대부분 뒤엎고 자기 나름의 새로운 경학 체계를 세우는 등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해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등 3대 저서는 나라를 경륜하고 천하국가를 통치할 방법과 제도를 마련한 저술로 그의 뛰어난 실학 사상을 알게 해주는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약용은 시인으로 2,500수가 넘는 탁월한 시를 지어 당대의 사회적 모순과 인민의 질곡을 여과 없이 비판하고 풍자하여 참여시 및 사회시로 부류되는 대작들을 대량으로 저작

해 냈다. 강자들의 횡포에 한없이 분개하면서 약자들의 지위 부상을 위한 애절한 절규를 시에 담아 압제받는 백성들의 대변자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

정약용은 의약분야에도 깊은 연구를 통해 방대한 『마과회통』 등 많은 의학서적을 저술하였고 <종두설>(種痘說)등을 저술하여 두질(痘疾)의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 기술의 길을 연 의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정약용은 현재에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수원 화성의 축조를 위해 설계도를 작성하고 축조기술을 설파한 『성설(城說)』을 저술하여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화성을 쌓는 데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던 건축학자였다. 또한 주교(舟橋), 즉 배다리라는 간이 교량을 설계하여 한강을 건너기 힘든 능행에 사용하여 정조가 화성을 자주 찾을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여 토목공학자로서의 지위도 얻을 수 있었다.

정약용은 36세부터 2년 가까이 황해도 곡산도호부사를 지냈다. 목민관, 즉 높은 지위의 공직자가 되어 목민술을 제대로 발휘하여 정치인으로서도 탁월한 능력과 수완을 떨쳐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실천가였음도 잘 알려진 일이다.⁸⁾

(11나)

1. 정약용에 대한 개괄적 소개
2. 구체적 설명
 - 2.1. 철학 저술
 - 2.2. 시 창작
 - 2.3. 의학서 저술
 - 2.4. 건축술 창안
 - 2.5. 정치적 능력

한편, 이러한 구조 제시가 오히려 학습자들로 하여금 읽기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학습자가 독해력을 완전히 갖지 못한 채 제시된 구조에만 의존하여 글의 내용을 단순화시켜 이해할 소지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지표 없이 무작정 떠나는 항해보다는 상세한 지도의 안내를 받는 편이 낫듯이 글의 내용을 무작정 읽는 것보다는 잘 분석되고 기술된 글의 구조도를 보고 읽는 것이 독해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읽기 지도 과정에서 매번 구조를 미리 제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제시 없이 읽고 나중에 구조도를 보

8) 이 글은 박석무(2007)을 대폭 개작한 것이다.

고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또 학생 스스로 구조도를 작성해 본 후 대조해 보는 방식의 지도를 병행한다면 진정한 글 분석력과 독해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개작 과정에서 구조를 제시할 때 얼마나 정합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필자가 처음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제시한 구조가 아니라 교재 개발자 나름의 독해를 바탕으로 추출해 낸 글의 구조도가 필자의 의도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또한 설령 필자가 구조를 미리 제시한다 하더라도 텍스트는 일단 작자의 손을 떠나면 그 자체로서 갖는 형식이 중요한바 텍스트가 갖는 진정한 내적 구조와 구조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텍스트 생성자가 작자로서 완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 통일성이나 긴밀성이 없는 문단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실제 글들의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텍스트 구조 제시 과정에서는 단락 내에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삭제하거나 위치 이동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응결성이 결여된 부분을 명시적 표현으로 바꾸어주는 등 텍스트 구조를 재조정하는 개작도 병행되어야만 텍스트의 구조 제시가 진정한 의미에서 읽기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7 학생 주도 개작

O'Malley & Chamot(1990)에서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언어활동에 있어서 학습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 둘째, 다양한 언어 학습 과업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업 수행의 주체가 학습자 자신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을 들고 있으며 Tomlinson(1996)에서도 학습자에게 학습에 연관된 요소 즉, 교수요목, 교수방법, 텍스트, 교수·학습 활동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 주도의 교재 개작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결정하는 일은 교재 개발 단계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재 개발 시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염두에 두고 고정적인 교재가 아닌 유동성 있는 교재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같은 텍스트를 몇 가지 단계를 두고 변형하여 신는다거나 개작할 부분을 남겨둔다거나 하는 일이 그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재란 물론 애초부터 학습자들의 급수를 고려하여 제작되지만 일정한 급수의 학생들이 모든 부면에서 고른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가령, 문법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게 제시된 텍스트와 그것에서 변형되어 문법 부분은 쉽게 풀어 놓았으며 어휘 부분에서 수준을 조금 더 높인 유사한 내용의 텍스트 등이 차별화되어 제시된다면 학생 주도의 선택이나 개작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다. 그리고 동일 주제에 대하여 다른 문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한 텍스트들을 몇 가지씩 모아 두면 종합적인 독해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유사한 내용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종합하여 학생 스스로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의 개작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재에 채택할 목적으로 텍스트를 개작했을 때 개작 이전의 원 텍스트와 개작된 텍스트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도 학생 주도의 개작 과정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텍스트에 대하여 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으나 몇 개의 예들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개작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 주도형 교재 개작은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며 학습 결과, 즉 능력 향상에 대한 자기 책임감을 심어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V. 결론

학문 목적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활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에서와 달리 구어 중심의 교육보다는 문어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정보의 산출보다는 정보의 획득에 목적이 있는 읽기 교육에 초점이 놓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 개발을 위해 전공 분야 텍스트를 개작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텍스트의 구조 제시가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생각해 보았다.

읽기나 듣기 등 이해 교육에서 진정성 있는 자료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한국어 교육계에 팽배해 있지만 과연 무엇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실자료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는 다소 소박한 논의를 벗어나 교육적 목적으로 충분히 고려된 바탕에서 가공된 자료가 오히려 더 진정성을 갖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의 읽기 교재에 채택할 읽기 텍스

트의 개작 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텍스트 간결화는 긴 이어진 문장을 짧은 문장들로 나누는 방식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텍스트 상세화는 간단히 제시된 주요 내용을 부연·상술하는 내용적 상세화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전공 저술에 많이 나타나는 비문법적인 문장들에 대한 수정 및 문형 정형화 사례를 보았고 어휘의 단순한 대치가 아닌 확장을 통한 독해력 향상을 도모하는 개작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재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량 조절 문제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텍스트 구조 제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의 텍스트 개작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한 실제 텍스트의 개작이 학문 목적 학습자의 읽기 교재 개발에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화·박동규, 「학문 목적의 병존 언어 교수 모델 적용 연구」, 『한국어교육 15-2』, pp.1-22, 2004.
- 권기을, 『읽기 지도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85.
- 김명중,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5.
- 김봉순, 「읽기 지도 내용의 모안」, 『선청어문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293-312, 1992.
- , 『읽기 평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pp.34-66, 1992.
- 김성연·김원기, 「학습자 자율성과 실용영어능력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7-3』, pp.107-129, 2005.
- 김연진·정동빈, 「EFL 학습자들의 어휘 습득을 위한 동시적 CMC 과제의 설계와 그 효과」, 『영어교육연구 18-2』, pp.203-224, 2006.
- 김영규, 「외국어 텍스트 수정 연구가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에 시사하는 점」, 『이중언어학 29』, pp.63-82, 2005.
- 김영아, 『한국어 듣기 교육: 문제점과 개발 방향』, 『교육 한글 8』, pp.159-176, 1995.
- 김영태, 김정화, 「초등영어 교재의 개작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17-3』, pp.131-161, 2005.
- 김인규,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교육 14-3』, pp.81-118, 2003.
- 김정숙,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1-2』, pp.1-20, 2000.
- 김창원, 「읽기 교재의 체계화와 그 적용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1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13-165, 1995.
- 김현정, 『읽기 교육에서의 스키마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5.
- 노명완, 「읽기의 관련 요인과 읽기 지도」, 『국어교육85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269-288, 1994.
- 민명인, 『동화의 교재화 양상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박나리·조선경, 「학문적 목적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외국어교육 10-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245-265, 2003.
- 박석무, 『세익스피어와 정약용』, 다산연구소, 2007.
- 박수자 외, 『읽기수업방법』, 초등국어교육학회, 박이정, 1999.
- 박수자, 「읽기 교재에 수록될 '글(text)'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 국어교육학회, pp.125-144, 1992.
- ,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pp.35-86, 1994.
- , 「독해전략의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27-57, 1995.
- , 『읽기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pp.116-117, 2001.
- 박영목, 「독서 능력 신장 방안 연구」, 『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59-93, 1995.

- , 『국어이해론: 독서 교육의 기저이론』, 법인문화사, 1996, pp.120-156, 1996.
- ,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1-51, 2000.
- 박영순,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제4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3.
- 박철우, 「학생 중심 읽기 지도」, 『국어교육 69-7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255-268, 1990.
- 신형욱, 「외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의 원칙」, 『Foreign Languages and education 5(2)』, pp.253-272, 1999.
- 심재홍, 『글의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독성 측정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pp.23-33, 1991.
- 양병한, 『읽기 교재의 구조 제시가 직후 재생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오정수, 『언어경험 중심 읽기 지도법(LEA)을 활용한 통합적 영어 읽기 지도 방안』, 『이화교육논총 1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7-58, 2000.
- 우동식, 『문학 교재 선정 기준의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윤대영, 『읽기지도를 위한 질문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이삼형, 「읽기 교육과정 개발과 읽기 평가」,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pp.273-297, 1996.
- 이진숙, 「L2 어휘 습득 시 일어나는 인지작용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32』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pp.40-55, 2006.
- 이혜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18』, pp.279-301, 2001.
- ,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 15-1』, pp.137-164, 2005.
- 이흥수 외 공역,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제4판) (H. Douglas Brown 지음) Pearson Education Korea, 2001.
- 전수정, 『학문 목적 읽기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정기철,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역락, 2000.
- 주옥파,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5-1』, pp.165-189, 2005.
- Constance Weaver, *Teaching Grammar in Context*, Boynton/Cook Publishers, Inc., 1996.
- Grant, N., *Making the Most of Your Textbook*, Longman, 1987.
- Long, M. H., "Authenticity and Learning Potential in L2 Classroom Discourse", G. M. Jacobs(ed.), *Language Classrooms of Tomorrow: Issues and Responses*(pp.148-169). Singapore: SEAMEO Regional Language Centre, 1997.
- O'Malley, J. M. & Chamot, A. U.,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Tomlinson, Choices, *FOLIO*, 3(1), pp.20-24, 1996.

〈Abstract〉

A Reading Education Guideline for Academic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Kim Jung-Nam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have the purpose of approaching the academic mainstream of university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nd steadily. Under this situation, the needs for developing Korean reading textbook is increasing, too. In this paper I assume that the reading textbook should be authentic, and for this reason, I propose several methods of text adaptation which elevates reading textbook's authenticity. The methods are as follows: simplification of sentences, specification of sentences, standardization of sentences, replacement or extending of sentences, adjustment of text length, presentation of text structure, and spontaneous adaptation by learners. We can take advantage of these methods focusing on promoting reading abilities of Korean learners.

Key Words: Reading Education(읽기 교육), Authenticity(진정성),
Textbook(교재), Adaptation(개작), Text Structure(텍스트 구조)